



國立公園의 先進化 秩序

—國立公園 管理方向과 機能確立이 必要하다—

金 樟 洙

國立公園의 機能 確立

우리나라에서는 1967년에 國立公園制度를 도입하여 最初로 智異山을 國立公園을 指定하여 현재 20個 國立公園을 위시한 64個所의 自然公園을 指定管理하고 있으며 總面積은 全國土의 4.7%를 占하고 있다. 自然公園의 指定目的이 自然風景地를 保護하고 適正한 利用을 圖謀함에 있으므로 自然公園의 管理는 당연히 保護와 利用의 適切한 調和를 이루기 위한 모든 合理的 行爲에 있다 하겠다. 그러나 保護와 利用과는 對立의 概念으로써 統一調和를 이루는 것은 現實적으로 매우 어려운 課題로 되어 있다.

최근 急速한 産業化와 都市化는 國民의 思考方式과 生活樣式을 크게 바꾸어 놓았다. 産業化로 인한 보다 많은 所得과 餘暇善用時間을 갖게 되었으며, 都市化로 인한 生活空間의 狹小化 非自然化가 招來하게 되었다.

따라서 많은 國民들이 餘暇時間을 즐기기 위하여 自然公園의 觀光休養地를 찾아 나서고 있다. 國立公園에서는 1981年, 1,250萬名에서 1988年에 3,800萬名으로 入場者가 7年間 約 3倍로 增加하고 있어 또 그 기간의 年平均 增加率은 17%에 이르고 있다.

이와같은 狀況下에서 探訪者가 自然公園을 訪問하여 公園의 生態系가 훼손되어 가는 실정인데 將次 國民 一人당 年 3회정도 訪問하게 된다면 自然公園의 生態系와 秀麗한 景觀이 잘 保有될 수 있는지 깊이 우려한다. 따라서 自然公園답게 利用되고 保存되

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自然公園의 機能을 確立하는 일이라 하겠다. 이러한 理念下에서 自然公園이 觀光慰樂休養資源의 하나로서 담당해야 할 機能을 分明히 하면서 사람이 快適하게 살아가기 위한 開發을 지속하여 利用하고 保存에 도움이 되는 思考下에 自然環境의 質을 어떻게 維持시킬 것인가에 力點을 두어야 한다.

최근 自然環境의 快適性을 保有하는 것이 아메니티(Amenity)의 保存이며, 우리나라의 自然公園에서도 自然의 風景를 保全함에 究極의인 目的으로 하고 있으며 사람들의 生活環境에 아메니티를 保全함에 있는 것을 重要目標로 하고 있다.

行政當局에서는 92年度 公園 探訪 秩序 先進化 運動에서 自然公園서비스水準의 向上, 自然保護를 통한 快適한 公園造成, 先進公園秩序의 定着을 重點課題로 推進하고 있는바 이는 官民一致되여서 自然公園을 國民의 道德 教育 示範場으로 造成하고, 모든 國民이 함께 가꾸는 參與 雰圍氣로 造成함으로써 名實共히 自然公園을 後世代까지 계승하여야 할 計劃과 實踐을 다짐하고 있다.

앞으로 自然公園은 未來指向의 管理方向 즉 環境적으로 건전하고 持續possible한 方向을 設定하여 合理的 利用을 하고 民間團體 主導下로 公園秩序 先進化 運動을 함으로써 自然公園의 機能을 充分히 發揮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될 것으로 이에 대한 實踐에 期待가 크다. [筆者: 本會 會長·農博·高麗大 名譽教授]